

주님의 심정, 그것을 받는 혼체

작성일 : 2012. 9. 8.(토) 오전 05:40

작성자 : 홍 별

(주님의 심정을 간구했습니다.)

* 성자 주님의 말씀 *

내 심정 알려 줄게.
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,
사랑으로 가득 넘쳐날 때도 있고,
답답한 심정일 때도 있다.
너도 나 만날 때
매일 마음이 다르고
심정이 다르지 않나.
그같이 나도 너 만날 때
매일 심정이 다르다.
네가 내게 어떻게 하였는지에 따라,
선생과의 사연에 따라,
세상이 내게 어떻게 하였는지에 따라
나의 심정이 다르다.

그러나 사랑아,
내 심정 알고 싶다 하니
진정 내 깊은 심정을 알려 준다.
눈물이다.
슬픔으로 가득하다.
왜냐면 너희가 구원받는 길을 가게 되어
너무나 기쁘지만
인류, 모든 인간의 나 성자는
지옥으로 가는 수많은 생명들을 바라봐야 하니까
너무 심정이 탄다.
너무 애달프다.
다 내가 사랑한 자들이고
나의 상대체인데,
나 너무 심정이 타.

그래서 하찮은 인간에게 가서 빌면서까지
나를 바라봐 달라고 간구하고 애원한다.
나의 이 심정을 알아 다오.
나의 십자가, 나와 함께하는 자는
나의 심정을 아는 자, 진정 나의 상대체다.
나의 사랑이다.

사랑아, 오직 너는 나만 바라보아라.
내 깊은 심정을 기도라는 매개체로
느껴 보고 나와 가까이하자.
내 심정 느낄 수 있을 것이다.
섭리, 그리고 인류를 바라보는 나의 심정을,
너를 향한 나의 심정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.
그러니 깊은 기도로 나의 심정에 이르러라.
나를 느끼고 만지고 깨달을 것이다.

나의 심정을 위로하는 선생 위해서도 기도해 줘.
선생 오직 나의 마음에 집중하여 모든 것 하고 있다.
그러니 선생의 마음을 위해 기도해 주어라.
그는 마음이 크고 넓고 깊어서
나의 마음 고스란히 받아간다.
너희는 감당 못할 심정까지 받아간다.
그러니 기도해 주어라.

(주님, 주님의 심정이 동일한 것이 아닙니까? 왜 사랑마다 받아가는 것이 다르다고 표현하십니까?)

애인이 있다.
가까움의 정도에 따라
느끼는 서로의 심정의 크기는 다를 것이다.
보다 가까운 자들은 서로 너무 잘 알기에
그 심정 이야기하지 않아도 들려오고 느껴지게 되지.
그것처럼 선생과 나는 가까우니
나는 그의 심정을, 그는 나의 심정을
온몸으로 영으로 받는다.
서로다.

이같이 너희도 나를 더 알고
나의 심정에 더 합당한 자,
그리고 나와 더 함께하고자 하는 자,
나와 심정이 가까운 자는
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단계에 오르게 된다.

그리고 또 한 가지, 혼체의 작용이다.
다른 자의 심정은
네 생각, 마음, 정신에 따라 한 번 걸러진다.
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는지,
그에 따라 나를 대하는 혼체가
어떻게 이루어지고 형성되었는지에 따라
나의 심정이 깊고 뜨겁하게 오기도 하고

그저 그렇게 지나가는 바람같이
느껴지기도 할 것이다.

(주님. 주님을 대하는 혼체가 무엇입니까. 제 육처럼
혼체는 하나가 아닙니까.)

네 육이 사람을 대하는 것이 다 다르지.
그처럼 혼체가 형성되어 그렇다.
초자연적 현상으로 네게 입력된 것,
네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
혼체가 다르게 형성된다.

안 좋은 생각, 마음을 먹으면
그것에 있어서는 혼체가 그렇게 형성되는 것이다.
또 네가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대하느냐에 따라
다 다르게 형성된다.
그래서 좋은 것만 보고
나 성자의 생각만 가져야 한다.
안 좋은 것들은 빼내기 배나 어렵기 때문이다.

또 얘기해 줄게.
네가 내 심정 구해서 왔다. 고맙다.
내 심정 알아줘 나 너무 기뻐서
그에게 간다.
계시한다.
사랑해. 또 봐.